

#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출토 漢式 사르마트鏡

이 지 은\*

##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사
- III. 사르마트 동경 분류
- IV. 한식 사르마트 동경
- V. 맺음말

## 국문요약

동경은 사르마트 매장유적에서 자주 출토되는 카테고리 중 하나이다.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에서는 재지유물뿐만 아니라 외래유물도 관찰된다. 또한 계통이 불분명한 동경도 출토되고 있다. 이런 동경과 중국경을 비교해본 결과, 이들의 기원이 한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에 반영된 각각의 속성은 원경과 연결된다.

한편, 사르마트 동경은 손잡이, 즉 손잡이가 뉴인지, 아니면 병부인지에 따라 분류된다. 방형뉴좌나 유좌, 그리고 기하문은 방격규구경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 원형뉴좌와 유좌와 함께 보이는 고사리문은 사유문경에서 보이는 요소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자문은 한자와 유사한데, 내용상 일광경의 명문과 유사하다. 전기한 동경은 문양의 명확성과 부수문양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 속성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출토 동경이 단순히 중국경을 베낀 것이 아니라, 재지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주제어 : 동경, 사르마트, 한경, 사르마트 동경, 러시아 유럽지구念佛禪

\*Southern Federal University 박사과정 (Russia)

## I. 머리말

먼저 본고의 지리적 범위는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지역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가진 국가로서 동으로는 태평양으로부터 서로는 흑해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 남부라고 하면 우랄산맥의 서쪽지역 남부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로는 태평양에서 흑해에 이르는 지역의 남쪽을 의미하므로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코카서스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최근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러시아 남부라는 표현보다는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로 불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러시아 영토는 우랄산맥을 기점으로 크게 유럽지구와 아시아지구 둘로 나뉘어 지고 유럽지역 남부(도 1)는 우랄 남서 지역, 볼가강 유역, 돈강 유역, 쿠반강 유역, 코카서스 북안지역이 해당된다.

그리고 본고의 시간적 범위는 사르마트 문화기이다. 유럽지구 러시아에서 사르마트 문화기는 스키타이 문화기 뒤를 잇는 시기이며 동쪽에서 우랄 서안으로 새로운 유목민인 사르마트가 이주하여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에 분포하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기원전 4 - 기원후 3세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 시기는 크게 초기, 중기, 후기 사르마트 문화기로 나누며 초기는 BC 4세기 후반에서 BC 2세기로 편년되고, 鎌形劍把鐵劍, 연부 단면 반원형의 柄鏡 등을 지표로 삼는다. 중기는 BC 1세기에서 AD 1세기로 편년되고 환두철검 및 능형 鐔부착 철검, 소형동경 및 다양한 기종의 토기와 외래유물의 출현으로 특징지어진다. 후기는 AD 2세기에서 3세기로 금속제 鐔 및 검파두식이 없는 철제장검, 소형동경 등의 유물이 특징적이다.<sup>1)</sup>

1) Скрипкин А. С. 1982. 『Азиатская Сарматия во II - IV вв.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2. С.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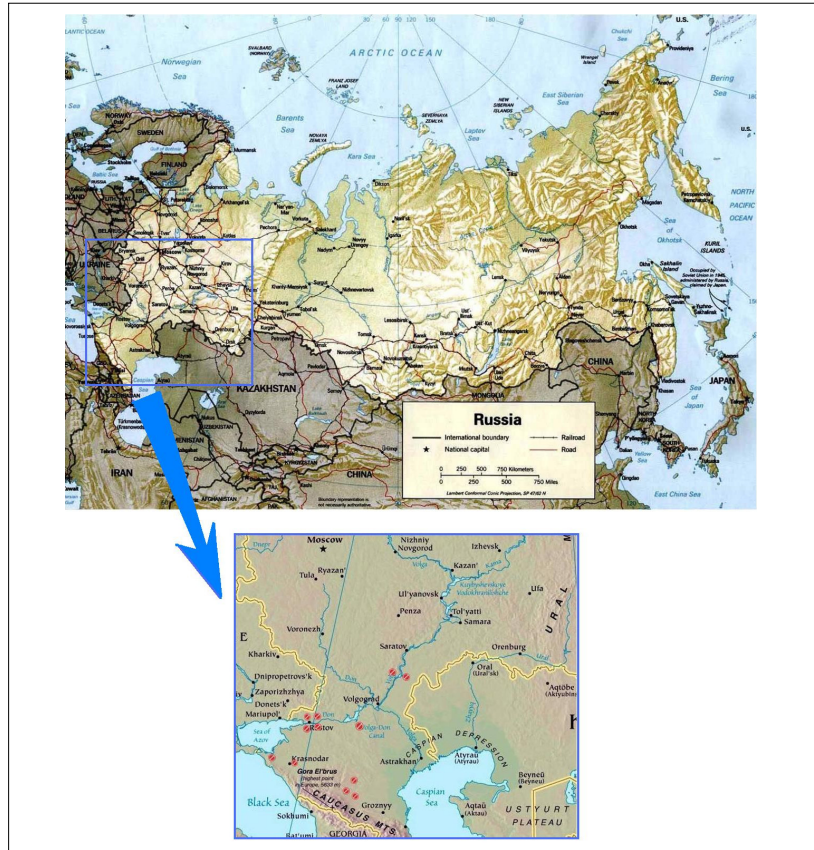
Скрипкин А. С. 1990. 『Азиатская Сарматия』. Саратов.

Глебов В. П. 『Специфика становления ранне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Рег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ранне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 материалы семинара Центра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сарматов』. Вып.2. Волгоград. 2007

Глухов А. А. 2001. 『Сарматы междуречья Волги и Дона в I в. н.э.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II в. н.э.』 канд. дис. Волгоград.

Клепиков В. М. 『Формирование ранне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Нижнем Поволжье』, 『Рег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ранне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 материалы семинара Центра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сарматов』. Вып.2. Волгоград. 2007

Максименко В. Е. 1998. 『Сарматы на Дону』. Азов.



도 1.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한식 사르마트경 분포도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매장유적에서 동경 부장은 매우 일반화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사르마트 문화기 출토 동경은 재지경과 외래경인 漢鏡, 이탈리아 경뿐만 아니라 그 원류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이 출토되고 있다. 필자는 계통을 찾기 어려운 경 중의 일부는 현지에서 외래경을 모방하여 제작한 경일 것으로 생각한다. 러시아 현지 연구자도 이러한 외래 요소를 지닌 경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 경이 이주, 무역, 무력충돌 등의 과정에서 유목민 사회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몇몇 연구자들은 중국경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sup>2)</sup> 필자 역시 사르마트 경으로 불리는 동경 가운데는 중국경을 모

2) Серганцов И.В., 1984,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Камышинском район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82 года』. М. С. 174, 175;  
Ковалевская В.Б. 1977, 『О работе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отряда Ставроп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76 года』, М. С. 102, 103, 105

방한 방제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그 동경을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추출하고 그 특징을 통해서 원형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사

1927년 출판된 『남부러시아 동경의 역사』에서 P. 라우는 우랄산맥 서부 지역, 불가강 유역, 코카서스 이북지역에서 출토되는 동경을 3형식으로 나누고 그 기원을 이오니아, 코카서스, 그리고 시베리아-중국에서 찾은 바 있다.<sup>3)</sup>

그 뒤 동경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한 A. M. 하자노프는 사브로마트와 사르마트 동경을 모두 10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즉, 제 1형식은 동경 측면에 긴 柄部가 부착된 것, 제 2형식은 동경 측면에 芯部가 달린 것, 제 3형식은 두드러지는 緣部와 측면에 긴 柄部를 수반하는 것, 제 4형식은 두드러진 연부와 측면 芯部를 소유하는 것, 제 5형식은 柄部나 鑿部없이 두드러지는 연부를 가지는 것, 제 6형식은 편평한 원판형의 것, 제 7형식은 無柄式에 직각 緣部를 가진 것, 제 8형식은 두드러진 緣部와 경면 중앙에 돌기, 측면에 芯部를 가지는 것, 9형식으로 측면에 耳部를 갖는 소형, 제 10형식은 배면 중앙에 반구형 鈕를 지니는 것으로 나누고 제 9형식과 제 10형식은 다른 지역에 기원을 둔 것으로 제 9형식은 기원전후 1세은 것으로 시베리아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제 10형식은 기원후 2~4세은로 편년하고 극동지역, 특히 중국의 특징임을 지적하였다. 제 9형식 가운데 배면에 탐가문<sup>4)</sup> 시문경과 배면

3) Rau P. 1927, 『Die Hügelgräber römischer Zeit an der unteren Wolga. Pokrowsk』, p.90 (Из статьи А.М. Хазанов 1963, 『Генезис сарматских бронзовых зеркал』,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4. С.58)

4) 탐가(tamga, tamgha / тамга)는 투르크계 용어로, ‘기호’, ‘문장’, ‘봉인’, ‘도장’을 의미한다. 고대 이란계 사회에서는 가계, 씨족을 대표하는 기호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계의 분화나 통합 등 다양한 여건 속에서 원래 기호가 부분적으로 첨가, 생략, 변형되어 표현되곤 한다. 汗의 서방 진출시 ‘탐가’는 ‘汗의 도장이 찍힌 문서’라는 의미로도 통용되었다. 페르시아 시편에서는 “샤흐-나메”, 현대 아프가니스탄이나 히바의 이란계 본토인 사이에서는 “nišon”, 고대 유럽계 사르마트의 직계후손으로 알려진 오세틴족 사이에서는 “gakk”으로 불린다. 탐가는 쿠산, 호레즘에서 자주 보이는데, 특히 고대 사르마트족의 영토인 유라시아 유럽지구 스텝, 서아시아, 코카서스산맥 일대에서 많이 보인다.

Драчук В. С. 1977, 『Дорогами тысячелетий』, М. С.189-191.

Яценко С. А. 2001, 『Знаки-тамги: Ирано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древности и раннего сред

중앙에 둥근 돌출부가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동양, 중국의 태양관념과 관련된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5)</sup>

뿐만 아니라 A. M. 하자노프의 제 9형식에 관해서 M. P. 아브로모바와 V. B. 비노그라도프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바 있는데 아브로모바는 라우의 의견과 같이 코카서스에 원류를 둔 것이며 특히 코반문화(Кобанская культура) 특징으로 보았다.<sup>6)</sup>

I. I. 마르첸코는 하자노프의 분류를 기반으로 삼고 쿠반강 중류역 사르마트족과 미오트족<sup>7)</sup>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동경을 11 형식으로 나누었다. 마르첸코의 제 9형식 역시 하자노프의 9형식인 측면에 고리를 부착한 소형동경이 속하고, 마르첸코는 이러한 동경이 기원전 2~1세기 시베리아 파지릭문화(Пазырькская культура)와 타가르문화(Тагарская культура) 유적에서 자주 출토되는 점을 지적하였다.<sup>8)</sup>

그러나 유럽지구 러시아에서 한경과 한경의 요소를 가진 동경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V. V. 구구예브, I. G. 라이차 M. Yu. 트레이스테르의 공동연구가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불가강 유역, 돈강 유역, 쿠반강 유역 출토 한경과 방제경을 소개하고 원경 형식을 추정하며 이들의 유입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방제경은 니즈네그닐로프(Нижнегниловский некрополь)(도 3, 15), 티람바(Некрополь Тирамбы)(도 3, 16), 체르니셔프(могильник у хут. Черньшев)(도 3, 14), 코냐코보 분묘군(Кобяковский могильник / Кобяково)(도 3, 17) 출토의 소형동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 동경은 측면 이부와 배면에 한자와 유사한 기호가 있는

невековья», М. С.4.

5) Хазанов А.М. 1963, 『Генезис сарматских зеркал』,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4. С.58, 60-69.

6) Абромова М.П. 1971, 『Зеркала горных районо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первые века нашей эры』,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данным』, М. С.121-132.

Виноградов В.Б., Петренко В.А. 1977, 『К происхождению сарматских зеркал-подвесок』,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Вып.148. С.44-48.

7) 미오트(Меоты, Μαῖοται)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중세초기까지 미오티다 또는 미오트의 호수(ἡ Μαῖωτις, ἡ Μαῖωτις λίμνη, Maeotis palus)라고 불리던 아조프해 동안, 동남연안에 살던 재지부족으로 현재 아드게아(Адыггея) 민족의 조상이고, 언어는 고대 코카서스어족에 속한다고 추정된다. 미오트족은 유목민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Марченко И.И. 1996, 『Сираки Кубани』, Краснодар. С.23-26.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이 소형동경을 漢鏡의 방제경으로 추정하는 근거로서는 배면의 전반적인 구성에서 漢鏡에서 보이는 연호문 형상과 한자와 유사한 기호를 지적하였다.<sup>9)</sup>

한편 볼고그라드州(Волго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바라노브카 분묘군(МОГИЛЬНИК у с. Барановка)(도 2, 13)<sup>10)</sup>과 北코카서스(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미네랄nye 보드이(МОГИЛЬНИК у минеральных вод) 소재 분묘군에서 출토된 동경(도 2, 14)<sup>11)</sup>이 발굴조사자에 의해 한경, 중국제품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구구예브, 라이차, 트레이스테르는 바라노브카와 미네랄nye 보드이 출토 경과 동일한 예를 중국 한경자료 가운데 찾지 못했음을 밝히면서 발굴조사자의 견해를 소개·언급하였다.<sup>12)</sup>

S. N. 사벤코는 일찍이 클린-야르 III 분묘군(Клин-яр III)에서 출토된 한경을 연구하면서 빠지고리 지역(Пятигорье)에서 출토되는 경들 일부를 한경의 방제경으로 추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코카서스의 알리노코프 고분군(Алиноковский могильник)과 포드쿰 고분군(Подкумский могильник)에서 출토된 배면 중앙에 위치한 반구형 뉴와 배면에 시문된 원권문과 그것을 둘러싸면서 반복되는 문양 가진 몇 점의 동경을 漢鏡의 방제경으로 보았다.<sup>13)</sup>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역 흑해 북안 출토 한경과 그 방제경, 그리고 박트리아 동경을 고찰한 A. V. 시모네키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州 볼로다로스 크郡 셰브첸코村(с. Шевченко Володарского р-на Донецкой области) 출

9) Guguev V., Ravich I., Treister M.Yu. 19916 『Han mirrors and their Replicas in the Territory of South of Eastern Europe』, 『Bulletin of the Metals Museum』, Vol.16, Aoba.

Гугуев В.К., Трейстер М.Ю. 1995, 『Ханьские зеркала и подражания 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га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3

10) Серганцов И.В, 1984,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Камышинском район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82 года』. М. С. 174, 175

11) Ковалевская В.Б. 1977, 『О работе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отряда Ставроп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76 года』, М. С.102, 103, 105.

12) Guguev V., Ravich I., Treister M.Yu. 1991, p.37.

Гугуев В.К., Трейстер М.Ю. 1995, 『С.149, 150.

13) Савенко С.Н. 1989, 『Предметы египетского, китайского, иран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комплексах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I тыс. н.э. Пятигорья』, 『Кавказ и цивилизация древнего Востока』(материалы всесоюз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рджоникидзе. С.96, 97.

Савенко С.Н. 1993, 『Предметы египетского, китайского, иран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комплексах I тысячелетия н.э. Пятигорья』, 『Кавказ и цивилизации Востока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Владикавказ. С.131, 134-136, рис.1, 7-8.

토 동경을 한경의 방제경으로 지적하였다. 즉 이들 유물은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고 방제품으로서 기원전후에 발생한 민족대이동이라는 역사적 맥락 내에서 구명하고 있다.<sup>14)</sup>

여러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방제경 연구는 사르마트 재지 토착경과 외국경에 보이지 않는 근원 불명의 경을 분석하고 이들이 중국 漢鏡을 모방·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경과 원형이 되는 한경 사이에 유사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못하고 어떤 형식의 한경을 모방하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필자는 불가강 유역, 돈강 유역, 코카서스 산맥 이북지역에서 출토된 한경 요소를 갖는 재지경을 분석하면서 경의 전체적 구조와 주문양, 일부 기호와 한자를 참조하여 이들 재지경이 중국경을 모방·제작되었음을 지적하고 모델이 되는 한경 형식을 추정한 바 있다.<sup>15)</sup> 그러나 당시는 사르마트 동경과 연구대상경을 비교분석하거나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서는 새로운 자료를 일부 첨가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당시 필자 외 구구예브, 라이차, 트레이스테르는 “한경의 방제경”이라 명명하였다.<sup>16)</sup> 방제경이란 용어에는 한경을 접했던 재지 동경 제작자들이 모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제작자는 원경과 유사하게 만들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뉴를 가지는 한경과 일부 재지경을 제외한 측면 耳部를 가진 재지경은 기본 형태에서 차이가 있고 이용방식도 상이하므로 실제 제작자에게 한경 방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측면 방형 이부를 가지는 사르마트경은 먼저 사용방법부터 측면에 부착된 방형판에 있는 원공을 통해 끈을 꿰어 매달기 때문에 중앙뉴에 끈을 관통시켜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한경과 다르다. 또한 거울로서의 용도가 아닌 주술적·장식적 의미를 가지는 패용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을 소형동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카테고리의 유물을 한경의 방제경이라고 하기보다

14) Симоненко А. В. 2000, 『Китайские и «Бактрийские» зеркала у сарматов Северного Причерноморья, 『Музейни Читання: Матеріали конференції 24 грудня 1999р.』 Київ С.136-143.

15) Ли Жи Ын, 2009, Местные подражания Ханьским зеркалам из погребений на юге России // Археология, древний мир и средние века. Вып. III. Ростов н/Д. С.16-23

Guguev V., Ravich I., Treister M.Yu. 1991

Гугуев В. К., Трейстер М. Ю. 1995,

16) Ли Жи Ын, 2009, С.16-23

는 환경의 요소를 지닌 재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이들 경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환경의 요소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측면 耳部를 가지는 사르마트 재지경 모두가 환경의 특징적 문양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의 방제경이란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대신 이들이 과거 사르마트족의 영역에서 출토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A. M. 하자노프가 사르마트 영역 출토 중앙뉴나 측면 병부, 또는 측면 이부를 가지는 경을 사르마트경으로 지칭하였음<sup>17)</sup>을 참고로 본고에서는 이 연구대상을 ‘한식 사르마트경’으로 부르고자 한다.

### Ⅲ. 사르마트 동경 분류

사르마트 동경은 원형에 柄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용법 측면에서 보면 중앙뉴에 끈으로 꿰서 손에 쥐고 사용하는 동경과 손잡이를 잡고 사용하는 柄鏡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有柄式은 동경재질과 같은 병부가 있는 것, 짧게 芯部가 있어 목제 또는 골각제 병부를 조립하게 하는 것, 정방형의 판이 튀어나온 것 등이 있다.

원형에 병부가 없는 동경은 중앙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有鈕式과 無鈕式으로 나뉘고, 유병식에는 배면 중앙에 乳가 있는지에 따라 有乳式과 無乳式으로 나뉜다. 有柄無乳式은 무문양인데 병부의 길이와 형태, 그리고 연부 단면형태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직경이 13cm~18cm이고, 측면에 동경 제작시 함께 주조된 병부가 달려는데 그 끝은 둥글게 마감되고 길이는 6~11cm 정도로 길다. 이 그룹의 동경은 기원전 6~4세기로 편년되므로, 사르마트 문화기 이전부터 존재하다가 초기 사르마트시기 전기에도 보인다. 두 번째 그룹은 긴 병부 대신 측면에 길이 2cm~3cm의 짧은 芯部가 특징인데 목제나 골제 병부가 장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중앙뉴가 없으나, 직각뉴가 있는 것도 있다. 기원전 6세기~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 세 번째 그룹 동경에는 측면에 芯部가 부착되어 있고, 연부 단면은 반구형으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이 동경은 기원전 5세기 말에 출현하여 기원전 3~2세기 유구에서 주로 출토되는 경향이 있다.

17) Хазанов А. М. 1963. С. 5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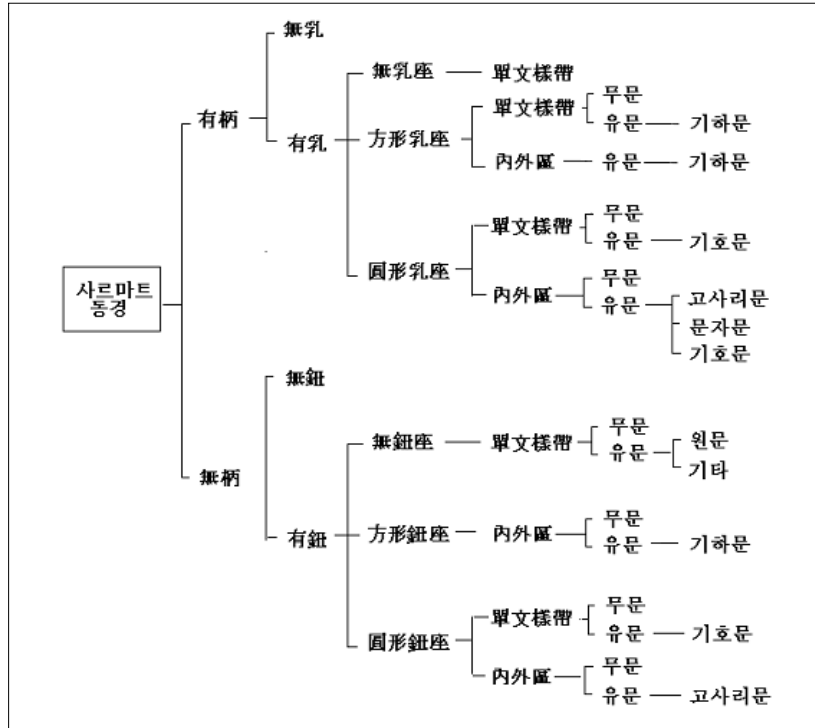


표 1. 사르마트 동경 분류 (1)

有柄有乳式에는 乳가 배면 가운데 위치하는데 乳座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유좌가 없고 심부가 있는 동경은 원뿔 형태의 乳만 가운데 위치할 뿐 유좌와 문양대의 내외구가 구획되지 않는다. 직경은 15cm 이하이다. 연부는 단면 반구형으로 그 위로 연호문이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기원후 1~2세기로 편년된다.

중앙유를 方形乳座가 감싸는 동경은 문양대가 내·외구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나누어지고, 다시 내·외구에 문양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지며, 문양이 있을 경우에는 내구에 'M', 'W', 'V' 같은 기호문이나 침선문, 외구에는 침선문이 배치된다. 원형유좌를 갖는 동경 역시 문양대가 내·외구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나누어지고, 문양의 유무와 기호문, 고사리문, 문자문 등 주문양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이렇게 방형 또는 원형유좌를 갖는 동경은 기원후 2세기 상반기~3세기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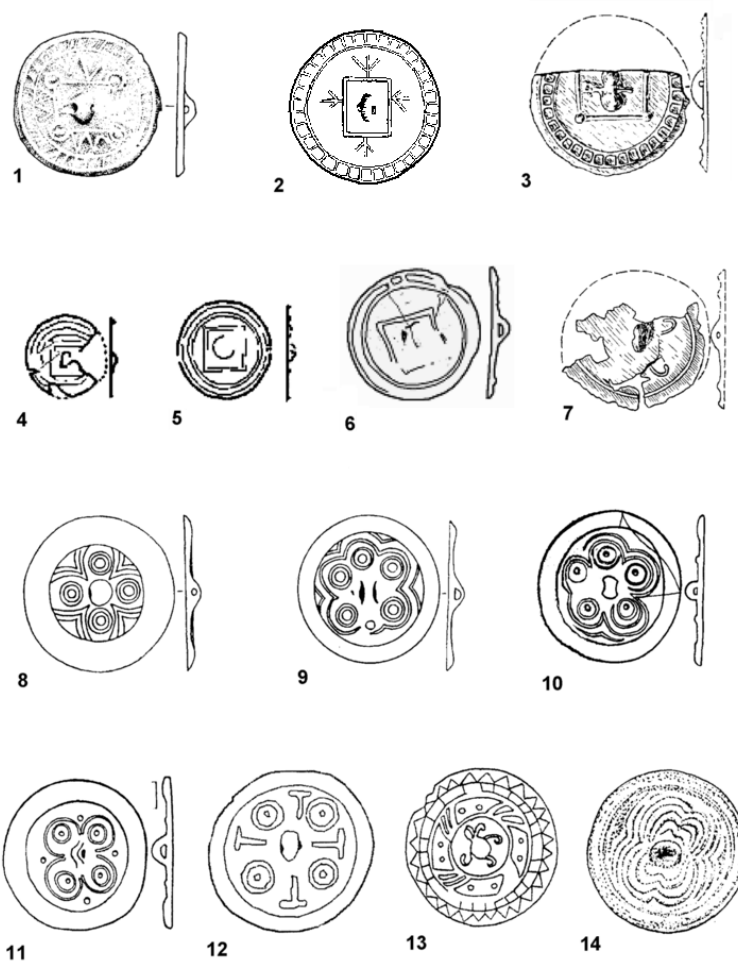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無柄式 동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中央鈕의 유무로 우선 분류된다. 無柄無鈕式 동경은 배면 공간이 따로 구획되지 않고, 문양도 없다. 직경 23cm 정도의 비교적 큰 동경도 있는 반면 4.5cm의 작은 것도 있는데 鏡臺에 올려놓고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자체를 손으로 바로 잡고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경 끝부분이 따로 마감되지 않고 연부가 표현되지 않은 無緣의 것이 있고, 직선으로 약간 외반하는 연부도 있다. 볼가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5세기에 출현한 예가 있으며 대부분 기원전 4세기~기원후 1세기 유구에서 출토된다.

그 다음 중앙뉴가 있는 無柄有鈕式 동경 역시 鈕座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無鈕座形, 方形鈕座形, 圓形鈕座形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뉴는 단면 반구형을 하고 있다. 직경은 약 5cm~9cm이다. 무뉴좌형은 문양 유무에 따라 다시 나누어지는데 대표적인 문양은 원권문이다. 원권문은 문양대에 小乳 또는 小圓圈이 거의 등간격으로 위치하고 보다 큰 원권이나 곡선이 감싸는 형태를 한다. 방형뉴좌형 동경은 내외구가 구분되고, 내구에 기하학문이나 소유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외구에는 침선문이나 공열문이 배치되기도 한다. 원형뉴좌형은 무문인 것과 고사리문이 있는 것이 있다. 중앙뉴가 배치된 무병식 동경은 기원후 1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기본적으로 기원후 2~3세기로 편년되지만 北코카서스지역과 우크라이나, 독일, 폴란드 등의 동유럽에서 기원후 4~5세기 유구에서 출토되고 있다.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에서 사르마트 문화기 이전부터 柄部나 芯部를 가진 柄鏡과 無柄鏡이 공존하고 있었다. 기원후 1세기가 되면 유병식 가운데는 일반적인 병부나 심부 대신 耳部가 달린 소형동경이 출현하고 동시에 芯部부착 동경 배면 중앙에 원뿔형 乳가 배치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원후 1세기 말에는 중앙뉴를 부착하는 無柄有鈕式 동경이 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경 배면 중앙의 乳와 鈕와 같은 돌기는 先사르마트 문화기나 사르마트 문화기 초기 동경에는 보이지 않다가 기원후 1세기에 출현하여 기원후 2~3세기에 유행하게 되는 새로운 요소이고,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유병식의 하나인 耳部가 달린 소형동경이나 無柄有鈕式 동경은 배면 가운데 돌기, 즉 乳 또는 鈕가 있다는 공통점 외에도 문양이 표현되어 있고, 뉴좌나 문양대의 구분, 또는 문양대나 연부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배면 공간의 구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IV. 한식 사르마트 동경

### 1. 無柄有鈕式 동경



도 2. 한식 사르마트 동경 무병유뉴식.

- 1 - 타나이스, 34/1990호분; 2 - 모자르; 3 - 코바코보, 38/1957호;  
 4 - 브이소치노 VII, 17호분, 1호묘; 5 - 나가예브스카 II, 11호묘;  
 6 - 크레핀스크 19호분, 1호묘; 7 - 코바코보, 13/1956호묘; 8 - 알리노코프 II, 1/1976호묘;  
 9 - 알리노코프 II, 5/1976호묘; 10 - 포드쿰; 11-포드쿰; 12-알리노코프 II, 10/1976호묘;  
 13 - 바라노브카; 14 - 미네랄느예 보드이

고대 중국 동경은 柄鏡 계열이 아니라 원형에 中央鈕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르마트 동경 중 기원후 1세기에 출현한 無柄有鈕式을 살펴볼 도록 하겠다. 전기했듯이 뉴좌의 유무와 형태로 방형뉴좌형, 원형뉴좌형, 무뉴좌형이 있다.

방형뉴좌형에는 단문양대를 가진 것과 내·외구를 가진 것이 있다. 기하문이 시문되는데, 내구에 M, V, W 같은 문양, 침선문, 외구에 침선문이나 공렬문이 배치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구 문양이 생략되고, 외구에만 문양이 보이기도 하고, 내·외구 문양이 모두 생략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는 방형의 뉴좌 외부 모서리 부근에 소유 한 개씩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타나이스 34/1990분묘(Танаис погребение 34/1990) 출토경<sup>18)</sup>을 들 수 있다. 직경 6cm 가량에 반구형의 중앙뉴를 가지고 있으며 방형의 테두리가 뉴좌와 문양대를 구분해주고 있다. 문양대와 연부는 폭을 약 0.5cm 가지는 단사선문대로 경계가 나누어진다. 문양대 방형 뉴좌 모서리에 4개의 小乳가 배치되어 있고 소뉴 사이 뉴좌변에 붙어 'M'과 'W'형 기하문이 있다(도 2.2).

코바코보 분묘군 38/1957호(Кобяковский могильник, погребение 38/1957) 출토경은 파손된 것으로 절반만 남아있는 것이다. 복원 직경은 5.8cm 이고 가장자리에 주물이 새어나온 흔적이 보인다. 반구형의 중앙뉴를 가지고 뉴근처에도 주물이 새어나온 흔적이 남아있다. 뉴좌는 방형이고 연부 내측으로 방격문대가 한 줄 돌아가고 있다.(도 2.3)<sup>19)</sup>

그 외에도 브의소치노 VII 고분군 17호분 1호묘(도 2.4) (могильник VII Вышочно, курган 17, погребение 1),<sup>20)</sup> 크레핀스크 고분군 19호분 1호묘(도 2.6) (Крепинский могильник, курган 19, погребение 1),<sup>21)</sup> 나가예브스카村 11호분 출토품(도 2.5) (у ст.Нагаевска, курган 11),<sup>22)</sup> 아스트라한州 스타리짜 59

18) 유물번호 T-90-НЗ. №263

19) Косяненко М.В. 2008. 『Некрополь Кобякова городища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1956-1962 гг.)』. Азов. С. 117. Рис. 17, 7

20) Беспальный Е. И. 1990. 『Погребения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ого времени в г. Азова』,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 С.213-223, табл.1, 23

Niezabitowka Barbara, 2004, 『Lustra z kolekcji Wrocławskiej』, 『Sarmaci I Germanie』, Lublin, С.198, 199, rys.5, В, 4.

21) Максименко В. Е. 1998. рис.66, 1,

Barbara Niezabitowka, 2004, С.198, 199, rys.5, В, 5.

22) Мусков Е. П., Сергацков И.В. 1994,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ие комплекс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Россий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2, С.179-190, рис.1, 16

Barbara Niezabitowka, 2004, С.198, 199, rys.5, В, 6.

호분(у Старица, курган 59) 출토품<sup>23)</sup>도 계통을 같이한다.

원형뉴좌형에 고사리문이 있는 동경은 1956년 발굴된 코바코보 분묘군 13/1956호분 출토 파손된 동경(표 5.10)이 유일한 예이다. 그러나 연부 안쪽에 또 하나의 돌대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내외구가 구획지어지고, 중앙뉴 주위에 어렴풋이 보이는 흔적에서 원형 뉴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서부터 고사리문이 외측으로 뺄어나가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sup>24)</sup> 잔존하는 두 개의 고사리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문양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부분에도 그런 문양이 2개 더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총 4개의 고사리문이 등간격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뉴좌형에는 바라노브카(Барановка) 출토 무문, 무연의 동경이 있다. 한편 기원후 초기 코카서스 일대에서 원문을 모티브로 하는 동경 몇 점이 출토된 바 있는데 알리노코프 분묘군에서 세 점, 포드쿰 분묘군에서 두 점 등이 그것이다.<sup>25)</sup> 문양대에 4~5개의 소형유 또는 원권문이 비교적 등간격으로 위치하고, 각각을 한 번씩 등글게 감싸서 마감되고 있다. 이렇게 마감된 소형유를 또다시 전체적으로 원권으로 감싸서 도안화한 것과 같은 문양이 추출된 예가 많이 보인다. 연부는 넓고 편평한 경향을 띤다. 이들 동경의 지름은 5cm 내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서스 일대 1976년 A. P. 루닌에 의해 발굴된 알리노코프 제 II 분묘군 1호,<sup>26)</sup> 5호,<sup>27)</sup> 10호묘<sup>28)</sup>에서 출토된 3점의 동경(도 2, 8-9,12)과 포드쿰 분묘군 42, 43호묘 출토에서 출토된 동경 2점(도 2, 10-11)<sup>29)</sup>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알리노코프 제 II 분묘군 제 10호분 출토 동경은 문양구성상 이 형식으로 분류되는 다른 동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양대의 동일 간격으로 배치된 4개의 소형유들 사이에 T자형의 기호가 위치하여 문양대를 4분한다는 점이다.

23) Кривошеев М.В. 2005. 『Комплексы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ого времени могильника Стариц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Вып.4. Ростов н/Д. С. 65. Рис. 1-5

24) Косяненко В. М. 2008. С.117. табл.17,8.

25) Текеев. 1980.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Нижнем-Архызском городищ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79 года』. М. С. 129; Абрамова. 1987. 『Подкумский могильник』, М. С. 82, 83. Рис. 43, 1,15

26) Савенко С. Н. 1993, рис.1, 7

27) Савенко С. Н. 1993, рис.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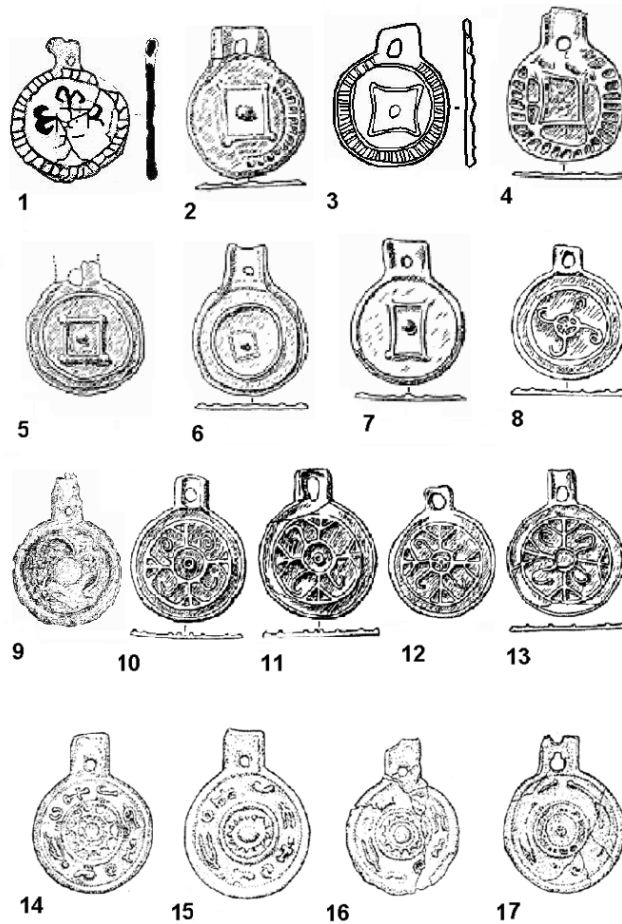
28) 현재 키슬로보д스크 역사·향토 박물관 《크레포스트》(Кисловодский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Крепость") 소장, 유물번호 ККМ ОФ. 3555/1-212.

29) Текеев Г. Х. 1980, С.129.

Абрамова М. П. 1987, С.82,83. рис.43,1,15

## 2. 有柄有乳式 동경

한경에서는 이질적 요소인 병부를 갖는 동경에도 한경에서 보이는 요소가 부분적으로 채용된 예가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耳部를 달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방형뉴좌가 표현된 것이 있다. 물론 코바코보 분묘군 38/1957호 출토 경(도 4.2)보다 약간 소형이지만 경 중앙에 小形乳가 있고, 그 주위에 방형 또는



도 3. 한식 사르마트 동경 유병유유식..

- 1 - 크레포스트느예유적; 2 - 코바코보, 23/1962호묘; 3 - 스타라짜, 59호분;  
 4-코바코보, 78/1957호묘; 5 - 코바코보, 65/1957호묘; 6 - 코바코보, Ⅱ. 38/1961  
 7 - 코바코보, 25/1962호묘; 8 - 코바코보, 28/1959호묘; 9-골루바야 크리니짜, 3호분, 1호묘;  
 10 - 코바코보, 26/1962호묘; 11 - 코바코보, 29/1956호묘; 12 - 코바코보, 6/1959호묘;  
 13 - 코바코보, 11/1961호묘; 14 - 체르니셔프 5호분, 44호묘; 15 - 니즈네그닐로프  
 12호분; 16 - 티람바; 17 - 코바코보, 26/1985호묘

장방형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 중앙뉴와 방형의 뉴좌를 연상시킨다. 본 분묘군 65/1957(도 3, 5)과 38/1961 호묘 출토경(도 3, 6)들은 연부 안쪽으로 또 하나의 테두리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마치 넓은 연부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방형의 유좌 모서리의 바깥부분에 소유가 존재하거나 문양대에 M, V, W 기하문, 그리고 침선문, 공렬문이 배치되기도 한다.

무병식 원형뉴좌형과 동일 문양인 고사리문이 유병식유유식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코바코바 분묘군 28/1959(도 3, 8), 26/1962(도 3, 13), 29/1959, 6/1959(도 3, 12), 11/1961 호묘 출토경(도 3, 11)과 지표수습품,<sup>30)</sup> 그리고 아스트라한주 체르노야르스크군 스타리짜촌(с. Старица Черногоярского рай она Астраханской области) 11호분 출토품이 그것으로 내외구가 구분되는 것도 있고 단문양대인 것이 있으나 경 배면 중앙에는 소형유가 위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고사리문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코바코바 분묘군 28/1959호묘 출토품(표4, 11)을 보면, 중앙에 편평한 점이 하나 위치하고 그 주위로 구획이 나누어진다. 이 구획 밖으로 4개의 고사리문이 등간격을 두고 위치하면서 한 방향으로 뻗어져나가다가 연부에서 마감된다. 코바코바 26/1962(도 3, 10), 29/1959, 6/1959(도 3, 12), 11/1961 호묘 출토경(도 3, 13) 역시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형태를 반복한다. 문양대의 고사리문 사이에 조족형의 문양이 배치되어 문양대를 4분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자문을 갖는 동경에 대해서는 이미 V. K. 구구예브, I. G. 라비치, M. Yu. 트레이스테르가 탐가 문양으로 명명한 문양이 특징적이다. 배면 중앙에 소유나 소형원권이 위치하고 그것을 원형의 유좌가 감싸고 있다. 그리고 배면은 유좌를 포함한 몇 개 원형대로 구획되고 내구에는 조잡한 연호문이나 침선문대가 돌아가며 외구에는 세장하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탐가가 위치하는데 그 모양이 한자와 유사하다. 연부의 폭은 좁은 편이다.

### 3. 원경과 변화양상

이상 소개된 동경의 특징을 통해서 한경과의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동경은 원형이고 배면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경면에는 어떠한 장식도 되어 있지 않다. 배면에 중앙뉴가 부착되고, 그 주변에 뉴좌와 문양대를 구분하는 원형 또는 방형의 테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는 약간 튀어나온 연부로 마감된다. 배면의 문양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면서 배치되어 있다. 원경, 배면의

<sup>30)</sup> Косяненко В. М. 2008. С. 112-114. Табл. 16,1-6



뉴, 뉴좌와 문양대, 중권문, 수평연부 등의 특징은 한경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경을 모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것을 원경으로 삼았는지는 뉴좌의 형태 및 주문양의 특징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즉 유병유유식 동경과 무병유유식 동경 중 방형 테두리에 기하문을 동일 모티브로 갖는 것, 원형 테두리에 고사리문이 공통적인 것, 무병유유식에 원문을 주문양으로 하는 것과 유병유유식에 문자문을 갖는 것 등이 주목된다.

특히 배면 중간에 유나 뉴를 둘러싸는 방형의 테두리는 비단 대상지역 재지경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다. 방형 뉴좌는 한경 방격규구경에 항상 나타나는 요소이다. 더욱이 방격규구경의 내구에는 지금 살펴본 동경과 같이, 소형유가 4개 또는 8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양상도 보인다. 방격규구경 문양대에 소유가 8개 배치될 경우, 그 유는 각 2개씩 방형 뉴좌 각 변에 자리 잡고, 4개 배치될 시에는, 방형 뉴좌의 모서리 부근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방형뉴좌 또는 뉴좌를 갖는 동경 가운데에는 뉴좌 모서리에 연접하는 소형유가 보이는데, 이것은 4개의 소형유를 갖는 방격규구문경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그 근처에 위치한 소형유를 방형 뉴좌에 더 가깝게 위치시키면서, 그것이 뉴좌의 일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코바코보 분묘군 38/1957호분과 23/1962호분 출토 동경의 외구, 연부에 보이는 1단의 침선문도 정밀도 측면에서는 한경에 미치지 못하지만 規矩鏡의 외구나 연부에는 삼각거치문, 방격형문, 단사선문 등이 주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규구경의 내구에, 즉 뉴좌가 외구 경계와 접하는 부분의 'T', 'L', 'V'와 같은 기하문은 타나이스와 코바코보 20/1961호묘 출토품에서 보이는 «W», «M», «T»와 계통을 같이 한다. 이처럼 이 그룹의 사르마트경은 방격규구경과 공통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초기에 제작된 이 형식의 방제경이 원경의 요소에 충실하게 제작된 것을 보아, 이 지역민들이 規矩鏡을 접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우랄 서안의 레베도브카 VI 고분군 39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sup>31)</sup>

무병유유식 방형뉴좌형 중에서 타나이스 39호묘(1990)<sup>32)</sup>와 모자르 출토 동경은 내·외구에 기하문이 존재하고 방형의 뉴좌 외부 모서리 부근에 소유 한 개씩을 배치하고 있다. 타나이스 39호분 출토 동경 배면 중앙의 반구형 뉴는 정방

31) Мешкова М.Г. 1982,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ие погребения Лебедев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в Западном Казахстане』,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Вып.170. С.82-84.

32) Арсеньева Т. М., Безуглов С.И., Толочко И.В. 2001. 『Некрополь Танаиса: Раскопки 1981-1995гг.』М. С.132. табл. 48,604, 91,1123.

형에 가까운 방형의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뉴좌 바깥부분, 즉 문양대 내구에 4개 소형유가 거의 등간격으로 위치하고 실질적으로는 직사각형 뉴좌 각 모서리 부분에 연결하고 있다. 내구의 이들 소형유 사이에는 M이나 W와 같은 지그재그 문양도 2,1; 도 4,1)이 존재한다. 외구는 좁은 간격을 가지는데, 외구에는 1단의 성근 단사선문으로 채워져 있다. 모자르 출토경 배면 중앙에 반구형의 뉴가 있고 그 주위로 방형의 테두리가 돌아간다. 이 테두리, 즉 외구쪽 뉴좌 각 변 가운데에 조족형의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문양대는 1단의 성근 방격문대로 마감된다(도 2, 2). 그런데 코바코바 분묘군 38/1957호묘 출토경에는 소유가 방형의 뉴좌에 포함되어 마치 뉴좌의 모서리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고 무문의 내구와 성근 침선문이 배치된 외구는 정밀도 측면에서 전기한 동경에 떨어지고 방격규구경 문양 일부가 생략되고 있으므로 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5, 2). 한편 브이소치노 VII 고분군 15호분 1호묘와 나가예브카 II 분묘군 11호묘, 스타리 짜 59호묘 출토 동경에는 소유와 문양이 표현되지 않고 방격 뉴좌를 제외한 문양 요소가 생략되었으므로 가장 늦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도 2, 4-5).

이들 동경은 전반적인 구성이나 문양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듯하다. 방격규구경의 특징을 반구형의 중앙뉴, 방형의 뉴좌, 규구문, 문양대에 있는 4 또는 8개의 소유와 연부 및 각 구획 가장자리에 돌아가는 단사선문대나 삼각침선문대와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문양대라고 할 수 있다. 사르마트경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지만 1 형식과 2형식의 동경에는 원경의 이런 요소들이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타나이스 39/1990호묘 출토경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면, 반구형의 중앙뉴와 방형의 뉴좌, 그리고 내구에 보이는 4개의 소형유와 TLV자를 연상시키는 기호와 외구의 방격문이 그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구의 소유는 눈에 띄게 작아지고, 방형뉴좌에 포함되어, 이 소유가 마치 방형뉴좌 모서리 접처럼 보인다. 다음으로는 방형이 되어야 할 뉴좌가 장방형이 되고, 네 변도 직선이 아니라 약간 휘어져 있다. 내구나 뉴좌 모서리에 있던 소유도 사라지고, 그 대신 뉴좌 모서리가 밖으로 늘어나면서 돌기하게 된다(표 5, 6, 8). 이러한 형식의 변화는 재지 제작자가 한경을 모방하고, 그것을 다시 모델로 삼아 모방함에 따른 문양의 생략과 왜곡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크레포스트노예유적 문화층 M1999 출토 동경과 같은 유병 유유식 방형유좌형에도 보인다. 내구에도 뉴좌에 접하는 새싹이 형상화된 것 같은 기호는 'M'이나 'V'가 왜곡되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구의 침선문과 같은 부수적 문양에는 비교적 한경의 요소가 많이 잔존되어 있다.

그러나 코바코보 23/1962호묘 동경에는 내구 문양이 사라지고 외구에만 침선문이 남아있으며, 동일 분묘군 78/1957호묘 출토 동경에는 뉴좌가 세장해지면서, 그 모서리도 밖으로 늘어나는 형상을 보이며, 외구에 침선문이 존재한다. 내·외구가 분리되나, 무문인 코바코보 분묘군 25/1962호묘과 장방형으로 모서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뉴좌에 무문의 단문양대를 갖는 동 분묘군 38/1961호 출토는 더 단순한 모습을 보인다.

출토지	코바코보 13/1956	코바코보 11/1961	코바코보 6/1959	코바코보 29/1956	河南省 洛陽	코바코보 1호
형식	무병식	유병식	유병식	유병식	漢鏡 사유사회경	漢鏡 사유금수문경
동경 도면						
부분						

표 3. 동경 배면 위치 고사리문 비교표

무병식과 유병식에서 주문양으로 고사리문을 갖는 동경이 시원을 추정하기 위해 사르마트 동경에 표현된 고사리문과 한경에 표현된 곡선을 따로 떼어내어 비교를 시도해보았다. 한경 가운데 문양대에 4개의 곡선이 주모티브가 된 형식을 살펴보면 사유문경과 규구경을 찾을 수 있다. 이 중 특히 사유문경에서 뱀이나 용, 호랑이와 같은 금수문이 길고 곡선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규구경에서는 소유와 규구문이 주가 되고 금수문은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2 유형식에 속하는 갈고리문과 사유문경에 표현된 금수문의 곡선을 비교하는 표 1을 참고로 할 때 이들 곡선 양단의 굴곡도나 마감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유사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유문경이 이 유형식의 원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불가강 유역의 베레쥬노브스크 II 고분군(Бережновский могильник II) 33호분,<sup>33)</sup> 돈강유역의 코바코보 분묘군 10호묘<sup>34)</sup>와 타나이스 10호분,<sup>35)</sup> 그리고 쿠

33) Синицын И.В. 1960. «Древние памятники в низовьях Еруслана». 『МИА』. Вып. 78. С. 10, 46, 47

34) Прохорова Т.А., Гугуев В.К. 1992. «Богатое сарматское погребение в кургане 10 Кобяков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С. 142

35) Казакова Л. М., Каменецкий И. С. 1970. «Курганы Танаиса»,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Вып.124. С. 81, 87

반강 유역<sup>36)</sup>에서 사유문경이 출토된 바 있으므로 실제 사르마트 동경제작자들이 이를 실견하고 일부 요소를 자신이 제작하는 동경에 반영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사리문을 갖는 유병식 동경에는 중앙유가 비교적 작게 표현되어 있고 일부 동경에는 유 대신 소원권이 있거나 아니면 유나 소원권 없이 원형유좌만 배치되어 있다. 무병식의 경우 중앙유가 크게 표현되어 있고 단면 반구형을 띠므로 한경에 더 가깝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유병식 동경에는 주문양인 고사리문뿐만 아니라 조족형 문양도 보이는데 중앙 원권과 조족문의 유무, 고사리문의 굴곡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유가 있는 것이 중앙원권이 있는 것보다 선행하는 듯 하고, 중앙원권이 있는 것은 그것이 없는 것보다 선행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고사리문의 굴곡도가 완만한 것이 굴곡이 심한 것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사용되었으며, 조족형문양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선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동경은 문양이 과장·왜곡되는 방향으로 형태가 변하는 것 같다.

무병유뉴식 무뉴좌형에서 원문이 주문양인 동경의 특징인 廣緣쪽, 반구형 중앙유와 배면 구획, 주문양의 정형화는 한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인다. 넓고 편평한 무문의 연부는 사유문경과 후한대 연호문경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주문양으로의 원권 또는 소유가 둘러싸이는 모습은 한경의 주문양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부분적이나 등간격으로 배치된 소형유와 그 주위의 와형 문양과 유사한 것은 2-3단으로 겹쳐진 원권문이나 소용돌이문, 혹은 유좌에 얹힌 소형유를 들 수 있다. 비록 눈에 띄게 표현된 특징은 아니지만, 2-3겹으로 겹쳐진 원권문이나 소용돌이문의 등간격 배치는 연호문경계의 雲雷連弧文鏡 외구에 종속적인 문양으로 사용된 경우가 알려져 있다. 만약 乳座에 얹힌 소형유가 어느 한경에 표현되었는지를 나열해야 한다면, 四乳鏡, 多乳鏡, 規矩鏡雲雷連弧文鏡多乳鏡이나 規矩鏡의 연부는 매우 복잡한 문양으로 장식되는 경향雲雷連비록 눈 원경 후보에서는 제외된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현재까지 알려진 이 형식에 해당하는 동경이 출토된 아리코노브 제 II 분묘군 출토 동경과 포드콥 분묘군은 모두 北코카서스 지역으로 한정되는데 1983년 이 지역 클린-야르 III 분묘군에서 雲雷連弧文鏡이 출토<sup>37)</sup>되었으므로 재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일부를 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sup>36)</sup> Гугуев В.К., Трей стер М.Ю. 1995. Рис. 3, 4

<sup>37)</sup> Савенко С.Н. 1989, С.96-97.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宝展// 朝日新聞社, 日本, 1991.

Савенко С.Н. 1993, С.134-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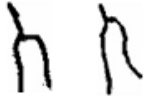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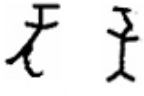
사르마트 동경 문자문				
한자	見	日	光	天

표 4. 사르마트 동경 有柄有乳式 圓形乳座形에 보이는 文字文

또 유병유유식 원형뉴좌형이고 문자문을 주모티브로 하는 동경의 중앙유와 내구의 연호문, 외구의 문자와 유사한 기호, 넓지 않은 연부는 전반기 연호문명문경의 특징과 일치한다. 외구에 위치하는 기호도 V. K. 구구예브, I. G. 라비치, M. Yu. 트레이스테르가 지적한 것처럼 세장하고 굴곡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자 고식체를 닮아 있다.<sup>38)</sup> 또한 이들 중에는 연호문명문경계 일광경에 자주 보이는 기호인 〇도 관찰된다. 여기 속하는 동경 중 크라스나다르주 체르니쇼바村 쿠르간 5호 44호묘(표 4, 14)와 니즈네그닐로프 분묘군 12호묘에서 출토된 경(도 3, 15)에 주출된 기호가 윤곽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문자문은 ‘見’, ‘日’, ‘光’, ‘天’의 한자와 대비된다. 더욱이 명문의 배치와 순서 ‘見日之光 天下大明’의 명문을 갖는 일광경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문자문은 일광경 명문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명문으로 쓰인 기호가 뚜렷하지 않으며 왜곡, 변형, 생략된 티람바 분묘군 54호묘 출토품(도 3, 16; 표 4, 15)과 코바코보 26호묘 출토품(도 3, 17; 표 4, 16) 역시 체르니쇼바과 니즈네그닐로프 출토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연호문경계 일광경을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러시아 유럽지구 볼고그라드주 스타라야 폴타브카 고분군 E25 호분 19호묘에서 ‘見日之光 天下大明’의 고식체로 표현된 명문을 갖는 일광경<sup>39)</sup>이 출토된 바 있다. 이 문자문을 갖는 유병유유식 동경은 문자문이 서로 분리되고 명료한 것에서 불명확하고 흐릿하게 표현된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처음에는 외구 문자문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고 그 자체도 명확하게 보이며 내구에도 연호문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제작되었다가 외구 문

<sup>38)</sup> Guguev V. K., Ravich I. G., Treister M. Yu, 1991, 37쪽.

Гугуев В. К., Трейстер М. Ю, 1995, С.150

<sup>39)</sup> Дневни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скопок, произведенных в Нижнем Поволжье летом 1927г. (Синицын И. В. 1946, 『К материалам по 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ижнего Поволжья』,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8. С.90-92 논문의 부록).

Maksimenko V. Ye., 이지은, 2006, 『初期鐵器時代 南部 러시아 돈江流域의 遊牧民族 埋藏遺蹟에서 보이는 東아시아系 文物』, 『東北亞 地域文化의 國際性 照明』. 부산. 99쪽, 도 6,2.

자문이 잘 분리되지 않고 흘러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약간 희미하게 표현된 동경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구 문자문이 단순하게 세장한 곡선이 길게 늘어진 것처럼 보이고 희미하게 표현되어 정확한 형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며 내구의 폭이 현저히 좁아져서, 연호문 대신 성군 침선문대가 돌아가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앙유 역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식 사르마트경은 사르마트 문화기 이전부터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에 존재하던 유병식 동경과 무병식 동경의 전통 속에서 한경의 요소가 일부 채용되면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先사르마트 문화기에서 전기 사르마트 문화기 柄鏡은 기원후 1세기가 되면 배면 중앙에 돌기가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출현한 심부를 갖는 병경의 중앙 돌기는 원뿔형이고 대부분 무문이며 문양이 있더라도 선각한 것이며 단면 반원형의 연부를 가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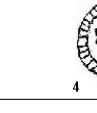


	무병식 방형뉴좌	유병식 방형뉴좌	유병식 원형뉴좌 고사리문	무병식 원형뉴좌 고사리문	유병식 원형뉴좌 문자문
3 세기		 			
					
					
2 세기		 			

표 5. 1 - 타나이스, 39/1990호묘; 2 - 코바코보, 38/1957호묘; 3 - 크레핀스크, 19호분, 1호묘; 4 - 크레포스트느예 유적 M; 5 - 코바코보, 23/1962호묘; 6 - 코바코보, 78/1957호묘; 7 - 코바코보, 65/1957호묘; 8 - 코바코보, 38/1961호묘 ; 9 - 코바코보, 25/1962호묘; 10 - 코바코보, 13/1956호묘; 11 - 코바코보, 28/1959호묘; 12 - 코바코보, 6/1959호묘; 13 - 코바코보, 11/1961호묘; 14 - 체르닉셔프, 5호분, 44호묘; 15 - 티람바; 16 - 코바코보, 26/1985호묘

로 한식 계통과는 연결시키기가 곤란하다. 기원후 2세기가 되면 유병식과 무병식 동경 모두에 중앙 돌기와 주출된 문양, 그리고 배면의 구획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유행하게 된다. 무병식의 경우 중앙 돌기는 단면 반구형의 鈕가 위치하고 유병식의 경우 이미 기존의 손잡이가 있으므로 중앙 돌기에 끈을 매달아 잡을 필요성이 없어 돌기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 단지 鈕의 형상을 하는 乳가 배치된다. 그리고鈕가 위치하는 곳과 배면의 전반적인 구획을 주기 위해 鈕좌가 생성되는데, 鈕좌가 없는 경우에도 문양과 일정한 간격을 두게 된다. 鈕좌는 형태에 따라 방형과 원형으로 나뉘어지고, 문양대 역시 내·외구로 나뉘어지곤 한다. 그리고 각 문양대에는 기하문, 고사리문, 문자문과 같은 한경에 특징적인 문양이 배치된다.

단면 반구형의 중앙鈕를 갖는 동경은 하자노프 10형식인 중앙鈕를 갖는 동경은 후기사르마트 시기로 편년되고 2세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3~4세기에 널리 유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40)</sup> 타나이스에서 출토된 중앙鈕를 갖는 동경을 주조한 용법이 3세기 1/2분기로 편년되는 유구에서 출토되었으므로 T. M. 아르세네바의 경우 이들 경이 3세기 상반기에 제작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41)</sup> 그리고 이부를 갖는 소형동경은 하자노프 9형식으로 1세기 말에서 3세기로 편년되었고,<sup>42)</sup> 이 연대관은 쿠반강 유역 자료에 의해 검증되었다.<sup>43)</sup> 돈강 유역 코바코보 촌락이 존재하였던 1세기 말~3세기 전반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출토되었다.<sup>44)</sup>

즉, 본고에서 살펴본 한경 요소를 가진 사르마트경은 A. M. 하자노프의 9, 10형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공반유물과 유구 편년에 의해 후기 사르마트시기 (2~3세기)로 편년된다.<sup>45)</sup> 이 지역 사르마트 분묘 편년의 지표로 널

40) Хазанов А.М. 1963, С.67.

Косяненко В.М. 2008, С.117.

Niezabitowka Barbara, 2004, С.198.

41) Арсеньева Т.М. 1984, 『Литейные формы для отливки зеркал из Танаиса, 『Древности Евразии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 С.21.

42) Хазанов А.М. 1963, С.67

Абрамова М.П. 1971, 『Зеркала горных районо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первые века нашей эры』,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данным』, М. С.128,129

43) Марченко И.И. 1996, С.24.

44) Косяненко В.М. 2008, С.108.

45) Гугуев В.К., Трейстер М.Ю. 1995, С.151.

Савенко С.Н. 1993, С.137.

Максименко В.Е. 1998. рис.66

Симоненко А.В. 2000, С.141.

Niezabitowka Barbara, 2004, С.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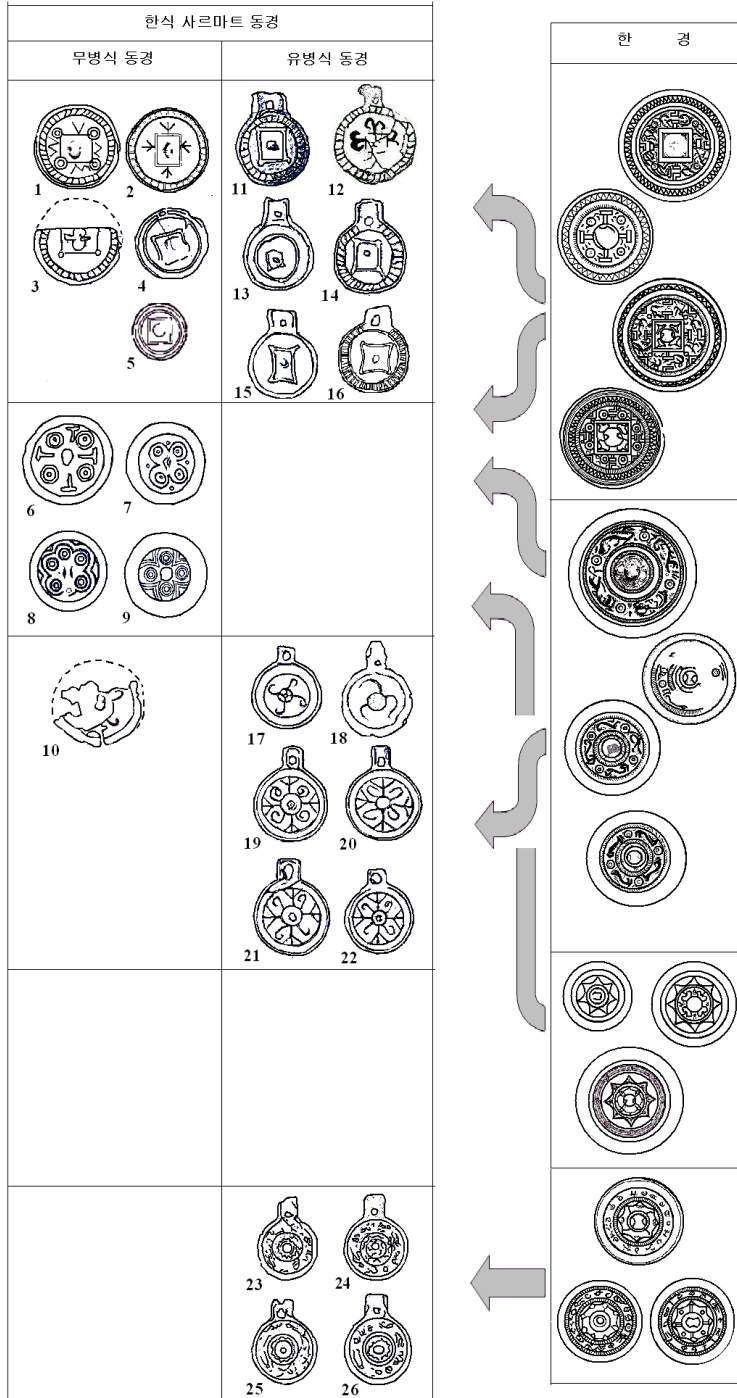


표 6. 한식 사르마트경과 원경



리 이용되는 옷핀을 통해 조금이나마 세분하여 보았을 때, 한식 사르마트경으로 추정되는 동경은 모두 2세기 상반기에서 3세기 상반기라는 비교적 짧은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경 원형과의 유사 정도를 기준으로 일부 속성들이 시간성을 가지면서 변화해가는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방형유좌 또는 방형뉴좌를 갖춘 동경에 표현된 기하문은 생략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원형유좌와 원형뉴좌의 고사리문은 굴곡이 심해지고 보조문양이 배치되는 등 문양형태가 왜곡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듯하다. 그리고 유병식 원형뉴좌를 갖고 문자문이 있는 소형동경은 문자 묘사의 정확성이나 명료성이 감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 V. 맺음말

기존 원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던 중앙뉴나 유를 가지면서 배면에 문양이 주출되었던 동경에 관해 살펴본 결과, 이 동경은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사르마트 문화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당지역에는 유병식 동경과 무병식 동경이 공존하고 있었고, 후기 사르마트 문화기라는 한 시점에 돌발적으로 배면의 구성과 문양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면 반구형의 뉴, 유와 배면의 구획, 그리고 기하문, 고사리문, 원문, 문자문이라는 새로운 문양 구성요소의 등장이다.

한식 사르마트 동경과 특정 한경 형식을 연결하는 것에는 뉴좌(또는 유좌)와 문양의 형태가 연결고리로 역할을 한다. 동경을 분류함에 있어서 공통적 문양상 지표가 있다는 점은 병경이나 무병경이냐의 사용방법상의 차이에서 벗어나, 이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식 사르마트 동경이 한경의 특정한 형식을 모방하였고, 그 형식은 한경의 형식과 상통하여, 모델이 되는 한경의 형식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방형뉴좌와 유좌, 그리고 기하문이 특징적이었던 유병식 동경과 무병식 동경은 方格規矩鏡을 방제하였고, 원형뉴좌와 유좌, 그리고 고사리문을 가지던 동경은 四乳文鏡을 모방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권과 그것을 둘러싸는 문양을 가진 무병식 동경은 연호문경에서 보이는 보조문양과 유사함을 보인다. 문자문으로 유명한 동경은 한대 동경 명문 고식체 중 일광경에 명문과 일부 일치하

였다. 더욱이 원경이 되었을만한 사누경, 규구경, 일광경, 연호문경은 적은 수이나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

한식 사르마트 동경은 한경의 요소에 충실성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자체의 편년안이 약 150년 가량으로 짧으므로, 제작 선후관계를 연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공간상 중국과 멀리 떨어진 러시아 유럽지구에 한경이 유입되었다는 점과, 그 한경을 본뜬 재지경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놀랍게 한다. 특히 한경의 요소와 재지특유 문양의 결합에 의해 제작된 방제경은 한경의 희귀성과 재지인에 의한 그 선호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사르마트 시기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출토 한경의 요소를 띠는 사르마트 동경을 분류하고, 원경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것이 앞으로의 문화 이동, 유사성과 상이성과 같은 보다 폭넓은 연구의 한 부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투고일 2010년 7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8일 ■

## 참고문헌

- Абрамова М.П. 1971, 『Зеркала горных районо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первые века нашей эры』,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данным』, М.
- Абрамова М. П. 1987, 『Подкумский могильник』, М.
- Арсеньева Т.М. 1984, 『Литейные формы для отливки зеркал из Танаиса』, 『Древности Евразии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М.
- Арсеньева Т. М., Безуглов С.И., Толочко И.В. 2001. 『Некрополь Танаиса: Раскопки 1981-1995гг.』М.
- Беспальный Е. И. 1990, 『Погребения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ого времени в г. Азова』,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
- Виноградов В.Б., Петренко В.А. 1977, 『К происхождению сарматских зеркал-подвесок』,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Вып.148.
- Глебов В. П. 2007. 『Специфика становления ранне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Рег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ранне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 материалы семинара Центра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сарматов』. Вып.2. Волгоград.
- Глухов А. А. 2001. 『Сарматы междуречья Волги и Дона в I в. н.э. -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II в. н.э.』 канд. дис. Волгоград.
- Гугуев В.К., Трейстер М.Ю. 1995, 『Ханьские зеркала и подражания 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га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3
- Дневник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скопок, произведенных в Нижнем Поволжье летом 1927г. (Синицын И. В. 1946, 『К материалам по 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ижнего Поволжья』,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8. С.90-92 논문의 부록).Скрипкин А. С. 1982. Азиатская Сарматия во II - IV вв.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исследования) // СА №2.
- Драчук В.С. 1977, 『Дорогами тысячелетий』, М.
- Казакова Л. М., Каменецкий И. С. 1970. 『Курганы Танаиса』,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Вып.124.

- Клепиков В. М. Формирование ранне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Нижнем Поволжье // Рег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раннесарматской культуры : материалы семинара Центра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сарматов. Вып.2. Волгоград, 2007
- Ковалевская В.Б. 1977, 'О работе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отряда Ставроп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76 года', М.
- Косыненко М.В. 2008. 'Некрополь Кобякова городища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1956-1962 гг.)'. Азов.
- Кривошеев М.В. 2005. 'Комплексы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ого времени могильника Стариц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Вып.4. Ростов н/Д.
- Ли Джи Ын, 2009, Местные подражания Ханьским зеркалам из погребений на юге России // Археология, древний мир и средние века. Вып. III. Ростов н/Д.
- Максименко В. Е. 1998. 'Сарматы на Дону'. Азов.
- Марченко И.И. 1996, 'Сираки Кубани.', Краснодар.
- Мошкова М.Г. 1982,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ие погребения Лебедев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в Западном Казахстане',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Вып.170.
- Мусков Е. П., Сергацков И.В. 1994,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ие комплексы на Нижнем Дону', 'Россий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2
- Прохорова Т.А., Гутуев В.К. 1992. 'Богатое сарматское погребение в кургане 10 Кобяковского могильника',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 Савенко С.Н. 1989, 'Предметы египетского, китайского, иран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комплексах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I тыс. н.э. Пятигорья', 'Кавказ и цивилизация древнего Востока' (материалы всесоюз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 Савенко С.Н. 1993, 'Предметы египетского, китайского, иран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комплексах I тысячелетия н.э. Пятигорья', 'Кавказ и цивилизации Востока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Владикавказ.
- Серганцов И.В, 1984,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Камышинском район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82 года'. М.
- Симоненко А. В. 2000, 'Китайские и «Бактрийские» зеркала у сарма

тов Северного Причерноморья», 『Музей ни Читання: Матеріали конференції 24 грудня 1999р.』Київ

Синицын И.В. 1960. 『Древние памятники в низовьях Еруслана.』 『МИА』. Вып. 78.

Скрипкин А. С. 1990. Азиатская Сарматия. Саратов.

Текеев. 1980.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Нижнем-Архызском городищ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79 года』. М.

Хазанов А.М. 1963, 『Генезис сарматских зеркал』,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4. С.58, 60-69.

Яценко С.А. 2001, 『Знаки-тамги: Ирано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древности и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М.

Maksimenko V. Ye., 이지은, 2006. 『初期鐵器時代 南部 러시아 돈江流域의 遊牧民族 埋藏遺蹟에서 보이는 東아시아系 文物』, 『東北亞 地域文化의 國際性 照明』. 부산.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宝展// 朝日新聞社. 日本. 1991.

Guguev V., Ravich I., Treister M.Yu. 19916 『Han mirrors and their Replicas in the Territory of South of Eastern Europe』, 『Bulletin of the Metals Museum』, Vol.16, Aoba.

Niezabitowka Barbara, 2004, 『Lustra z kolekcji Wroclawskiej』, 『Sarmaci I Germanie』, Lublin,

Rau P. 1927, 『Die Hügelgräber römischer Zeit an der unteren Wolga. Pokrowsk』, (Из статьи А.М. Хазанов 1963, 『Генезис сарматских бронзовых зеркал』,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4. С.58)

Abstract

## Bronze Sarmates' mirrors with the Han elements of Han dynasty from the southern european part of Russia

Lee, Ji Eun

The bronze mirrors are one of the popular categories from the burials of Sarmates. In the south of european part of Russia there are not only local products but also imports. Moreover archaeologies had been finding some mirrors with unidentified root. Giving attention to scheme and ornaments of these mirrors and comparing them with Chinese mirrors, author can find their prototypes from the Han mirrors. Every attribution at our objects shows distinction of certain Chinese types.

Otherwise Sarmates' mirrors could be classified by the forms of handles. And then forms of frames around the central handle or knob. Decoration is the one of important attribution to find the prototypes of the Sarmates' mirrors with Han elements. Mirrors with square frame and geometrical ornaments are thought to imitation of type TLV. Round frame and ornament like a bracken are considered that they have some similarity with the Han mirrors with four knobs and for beings. Symbols (characters), which are consisted in curved lines, are similar to Chinese hieroglyph on the mirror of type "sunshine (ri guang)". Others also have some elements, which were at the Han mirrors. It's thought, that the types reflect the traits of time.

Meanwhile it's interesting to check that these kinds of mirrors from the south of Russia were not just copy the Chinese original, because there are some local traits.

Key words : bronze mirror, Sarmates, Han mirror, Bronze Sarmates'  
mirrors, uropean part of Russia